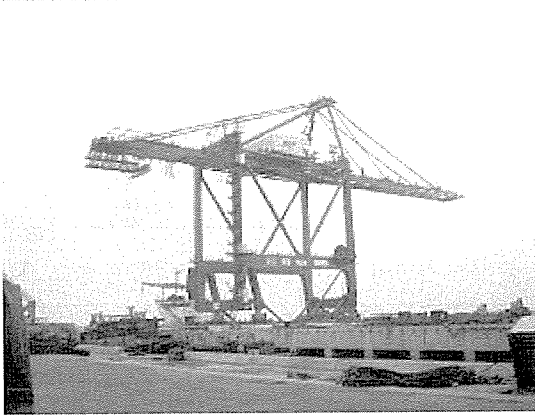




부산신항에 모두 9기의 안벽크레인 설치

20피트 컨테이너 동시에 2개 하역가능



최근에 부산신항에 반입이 시작돼 오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되는 각종 크레인 장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상하이 ZPMC사가 만든 초대형 안벽 크레인(STSC·컨테이너크레인·사진) 3기가 특수선에 실려 부산신항으로 들어와 부두에 설치되는 등 모두 9기의 안벽 크레인이 설치된다.

대당 가격이 65억원인 안벽 크레인은 높이 28.9m, 레일 너비 42.67 m인 초대형급 하역장비로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개(최대 66톤)를 동시에 들어올릴 수 있는 투윈리프트가 설치돼 있어 하역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크레인은 컨테이너 22열에 대한 처리가 가능,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으로 분류되는 8천TEU 급(VLCS)은 물론 세계 해운업계의 차세대 주력선이 될 1만TEU급 컨테이너선(ULCS)에 대한 물량처리도 할 수 있다.

또 모두 18기가 바지선으로 반입돼 야적장(CY)에 설치되는 야드 크레인(RMGC·트랜스퍼 크레인)은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이 제작한 것으로 대당 가격이 25억원이다.

이 크레인은 레일 너비 28.4m로, 컨테이너를 5단 9열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투윈리프트도 갖추고 있다. 이들 크레인 장비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 능력은 90만TEU다.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 1, 2부두로 결정 오는 2008년 1, 2부두 재개발공사 착수

해양관광에 대비한 크루즈 터미널을 겸한 국제 여객터미널 건립예정 위치가 부산항 1, 2부두로 결정되는 등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가닥이 잡혔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 해양수산부는 오거돈 장관 주재로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용역'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를 열고 한국해양대 등 용역 수행기관이 초대형 크루즈선박 접안이 가능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지로 제시한 1, 2부두와 중앙부두 중 1, 2부두를 선택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BPA는 오는 2008년 1, 2부두 재개발 공사에 착수해 국제여객터미널과 함께 워터프론트(친수공간)를 확보키로 했다.

이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인근에 들어설 롯데월드와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자갈치시장, 남포·광복동 상권, 관광시설이 확충될 영도 등과 연계될 경우 해양관광·위락기능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PA는 내년 5월 완공되는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의 크루즈 전용부두에 500~1,000명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지어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키로 하고, 종전 사업비 20억원 외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